

낮 뜨거운 '광주의 첫 관문'

1. 중앙부처 공무원 김모(34)씨는 고향집 화순에 가기 위해 광천동 터미널을 찾았다. 택시기사의 호객행위로 얼굴을 찌푸리게 된다. 그는 한 달에 한 번쯤은 심야에 광주로 내려오는데 그때마다 택시기사들이 옷깃을 붙잡고 따라오거나 큰소리로 호객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김씨는 "터미널은 외지인에게 광주의 첫 인상인데 불법 호객행위에 합승까지 이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2. 회사원 박모(여·28)씨는 광주시 동구 구 시청, 상무지구 유흥가에서 약속이 있을 때면 항상 부담스럽다. 술집에 고용된 젊은 남성들이 담석 손을 잡고 끌고 가려하거나 아예 가는 길을 막으면서까지 호객행위에 열을 올렸기 때문이다. 박씨는 "호객행위를 넘어 추행으로 이어지는데 단속은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불평했다.

광주지역 택시기사와 술집 등 유흥업소 업주들의 불법 호객행위가 도를 넘어 심각

버스 터미널·공항 등서 택시 합승·호객행위 버젓이

유흥가 '추행성 호객'도... 형식적인 단속에 민원 폭증

한 상황이다. 특히 광주시 서구 종합 버스 터미널, 광주공항, 광주역 등 광주의 첫 관문에서 택시 기사들의 호객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단속은 흉내 내기에 그치고 있다.

올 들어 8월 말 현재 광주시와 서구청에 접수된 택시 호객과 합승행위에 관해 접수된 민원은 모두 81건. 택시호객 행위는 59건으로 민원 발생지역별로 보면 종합터미널 48건, 공항 7건, 광주역 2건, 기타지역 2건 등이다. 택시 호객행위 대부분이 광주의 첫 관문인 종합 버스터미널이나 공항에 집중돼 있다. 택시 불법합승에 관한 민원도 터미널, 공항에서 주로 발생했다.

문제는 광주의 첫 관문으로 인식되는 터미널이나 공항, 기차역 등에서 호객행위

가 잇따라 시민 불편이 계속되는데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광주시는 올 들어 고차 4건을 적발, 각각 과태료 20만 원을 물린 게 전부다. 민원이 잇따라 서구는 다음달 초 이틀간 직원 2명을 투입, 터미널 일원에서 택시 불법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지만 단속 기간이나 인원으로 볼 때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긴 힘들다.

택시기사의 불법 호객·합승 행위와 함께 광주 도심 유흥가에서의 호객행위도 늘고 있다. 서구 상무지구나 동구 구 시청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는 밤마다 술집에 고용돼 손님을 끄는 호객꾼들이 넘쳐나고 일부 호객꾼의 경우 여성의 옷깃을 잡고 길을 막아서는 등 '추행성' 호객

행위까지 일삼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단속해야할 구청이나 경찰은 뒷집을 지고 있다. 이들 기관이 단속에 소극적인 이유는, 올 들어 접수된 민원이 광주 서구의 경우 3건(서부서 0건), 동구의 경우 0건(동부서 10건) 등으로 많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단속에 나서더라도 호객행위에 대한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따르고 적극적으로 나섰다가는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과 구청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광주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행정 편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민원이나 시민 불편이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대책이 뒤따르는 게 기본"이라면서 "앞으로 광주에는 U대회 등 굵직한 국제 행사도 예정돼 있는데 기본적인 질서 유지도 안되는데 어떻게 성공 개최가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포식자' 황소개구리

습지생태계 교란 확인

조류·포유류까지 '꿀꺽'

황소개구리가 먹이사슬의 상위에 있는 조류와 포유류까지 잡아먹는 등 습지 생태계 교란 생물로 분석결과 확인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9일 오후 4월부터 8월까지 경남도 창원 기항 습지에서 서식하는 황소개구리의 먹이원을 분석해 총 61개 종류의 먹이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분석결과 포획한 황소개구리 위(胃)에서 총 632개체가 발견됐으며, 황소개구리는 주로 곤충류를 잡아먹는 것으로 확인됐다. 먹이원 비율은 곤충류 65.3%, 공벌레류 13.8%, 달팽이류 7.9%, 개구리류 7.1%, 거미류 4.3%, 어류 0.6%, 지렁이류 0.3%, 포유류 0.3%, 지네류 0.2%, 조류 0.2% 순이었다.

특히 황소개구리는 장수말벌, 등검은 말벌 등 독침을 가진 독충류와 두꺼비의 올챙이와 같은 토종 양서류뿐만 아니라 먹이사슬 상위에 있는 박새 등 조류와 들쥐, 뚝딱 등 포유류도 마구 잡아먹어 습지 먹이사슬을 교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과학원은 기항 습지에서 포획한 129마리를 마취 후 영하 70도로 급속 냉동해 분석한 다음 위 내용물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먹이원을 확인했다.

1970년대 미국에서 들어온 황소개구리는 왕성한 식욕과 높은 번식 속도로 인해 토착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강정마을 들려나온 수녀

29일 오후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연대 출범 3주년을 기념해 해군기지 건설 중단과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기원하는 미사가 열렸다. 한 수녀가 미사 도중 여경들에 의해 공사장 앞에서 들려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쓰레기 봉투안에서 갓난 사내아이 시신 발견

남구 주월동 아파트... 경찰 수사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생활쓰레기 분리작업을 하던 쓰레기 운반차량 안에서 갓 태어난 사내 아이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오전 8시50분께 광주시 남구 주월동 I아파트 분리수거장 앞길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던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안에서 훼손된 남아의 시신과 탯줄이 발견됐다. 시신은 10ㄷ 짜리 종량제봉투 안에 담겨 있었으며, 종량제봉투 안엔 여성복

다섯 벌이 들어 있었다.

종량제봉투 안에 있던 시신은 생활쓰레기 수거차량에 들어갔다가 압착하는 과정에서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명확한 사인을 가려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의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경비실 주변 등에 설치된 CCTV 화면 분석 등을 통해 범인의 뒤를 쫓고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26 해질 18:19
 물결 11:51 물결 22:24

출근길 안개 주의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았다.

◇지역별 날씨 (℃)

광주	맑음	18/27	보성	맑음	17/24
목포	맑음	18/25	순천	맑음	19/26
여수	맑음	21/23	영광	맑음	17/25
나주	맑음	16/27	진도	맑음	19/25
완도	맑음	20/26	전주	구름많음	16/26
구례	맑음	17/26	군산	구름많음	16/25
강진	맑음	17/26	남원	구름많음	15/25
해남	맑음	18/26	축산도	맑음	19/23
장성	맑음	16/26			

◇바다 날씨

방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서	1.0~2.0	북서	0.5~2.0
남해	남서	1.5~3.0	북서	1.5~2.5
남부	남서	0.5~2.0	북서	1.0~2.0
서부	남서	1.0~2.5	북서	1.5~2.5

◇생활지수

식중독	58
운동	40
빨래	6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시각	수치	시각	수치
여수	10:43	05:35	23:20	18:17
	05:57	00:01	18:45	12:36

◇주간 날씨

10/1(수)	2(목)	3(금)	4(토)	5(일)	6(월)	7(화)
16/26	15/25	16/24	12/25	13/25	14/25	12/25

경찰 시험 낙방 비관 30대 남성 목매 숨져

4년제 대학 졸업 후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30대 남성이 잇따라 시험에 불합격한 것을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28일 오후 12시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A원룸에 사는 최모(35)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형(50)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방안 책상에 부착된 메모지에 '세상은 강자를 위해 존재한다. 약자는 세상을 외롭게 산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최씨는 숨지기 직전 형에게 "죄송합니다"라는 내용과 주소·연관 비밀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최씨는 광주 모 대학을 졸업한 뒤 일 자리를 구하려고 했으나 실패하자 경찰공무원 시험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씨는 혼자 살면서 평동공단 등지에서 일해 번 돈으로 생활비 등을 벌어 생활해 왔으나 시험 불 때마다 낙방하자 심각한 고민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최씨가 가족들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왔다는 유족 등의 진술로 미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요양병원서 70대 추락사

전남지역 한 요양병원에서 치매치료를 받던 70대 노인이 추락사했다.

지난 28일 밤 9시55분께 나주시 성북동 A요양병원 뒤편에서 최모(여·72)씨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직원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간병인은 경찰에서 "다른 입원실에서 환자를 간병하는데, (최씨가) 7층 복도 끝 베란다로 향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최씨는 지난 7월 입원한 뒤 치매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씨가 사물을 잘 분간 할 수 없는 시각장애 2급인 점으로 미뤄, 자신의 병실에서 홀로 나온 뒤 베란다를 화장실로 착각하고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요양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조치 위반 등 과실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할 방침이다. /나주=손영철기자 yjyson@

광주전남 새마을금고 경영평가대회 대상 수상기념

담보대출 100억 특별 한시판매

더 높은 한도 더 낮은 저금리 혜택!

-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
- 담보감정 평가수수료 면제

01 부동산 담보대출 최저 3.5%~ 이대부, 주택, 상가, 공영, 내외국, 특목, 전·담, 모빌 대출한도: 최고 80% (신용등급) 상환방식: 원금/이자/원금 구비서류: 등기부등본, 전세보증금, 주민등록, 최근 3개월 소득증빙, 신용증	02 햇살론대출 운영자금 최고 2천만원 / 영업자금 최고 5천만원 대출자격: 신용등급 4 이상 또는 연소득 3천만원 이상 대출한도: 운영자금 최고 2천만원 / 영업자금 최고 5천만원 대출금리: 연 0.01% (이자면담) 보유금: 대출금에 0.95% (4영업일, 0.90% (2영업일))	03 아파트 전세 보증금대출 전세보증금 최고 80% 까지 가능 대출금리: 최저 4.0% (신용등급에 따른 차등) 상환방식: 원금/이자/원금 (이자면담) 구비서류: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 주민등록, 최근 3개월 소득증빙, 신용증	04 자영업자, 직장인 신용대출 간편한 대출 절차로 최고 1억원 까지 가능 대출자격: 자영업자 및 직장인, 연소득 1억원 이상 대출한도: 최고 1억원 대출금리: 최저 5.0%~ 대출기간: 최대 5년 대출방식: 원금/이자/원금 (이자면담)
--	---	--	---

더 높은 이율 더 많은 비과세 혜택!

1인당 7,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정기예탁금	수시 입출금 통장	정기적금
1년 2.85% 18개월 2.9% 3년 2.9%	최대 2.5% 단, 하루를 앞가득 달한예금 (당첨금 제외)	1년 3.1% 2년 3.2% 3년 3.3%

MG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223-8007, 232-7251
 충장지점: 223-7217, 223-7218

SAMSUNG 삼성전자 파트너 굿모닝 하이넷

속타는 에너지 비용 삼성이 책임집니다!!

에너지 절감의 혁명!!

등유대비 68% 절감
전기 54% 절감
도시가스 42% 절감

고정비용을 줄여라!!

지역 특판점 및 영업사원 모집

삼성전자 히트 펌프 보일러 냉방 전문점 대표번호 **1644-8983**